

2027

서울 WYD(세계청년대회)

안내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안내서

2027
서울 WYD를
소개합니다

2027 서울 WYD 지역조직위원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내서

2025년 6월 29일 초판 1쇄 펴냄

펴낸 이 정순택

펴낸 곳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

연구·종합 2027 서울 WYD 본당 지원팀

주 소 04537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4층 WYD 지역조직위원회 사무국

이메일 wydseoul2027@wydseoul.org

홈페이지 <https://wydseoul.org>

캘 리 유임봉

디자인 김화진

인 쇄 가톨릭출판사

비매품

이 책에 대한 저작권과 판권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지역조직위원회에 있으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목 차

주교님 말씀 • 4

젊은이를 위한 기도 • 6

1. WYD란? • 7
2. WYD의 역사 • 11
3. 2027 서울 WYD 준비 및 본대회 • 14
4. 2027 서울 WYD 로고 • 22
5. 2027 서울 WYD 주제성구 • 24
6. 2027 서울 WYD 영상 • 26
7. 2027 서울 WYD 시목적 의미 • 28
8. 2027 서울 WYD 함께 만들어 가기 • 33
9. 나가는 말 • 39

주교님 말씀

+ 찬미 예수님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2027년 세계청년대회(이하 WYD) 개최지를 서울로 발표하시며, 우리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하고, 서로 다른 곳에서 자란 젊은이들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2027 서울 WYD는 만남의 축제이자, 교회와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알리는 선교의 장이며, 희망의 순례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번 WYD를 통해 우리는 가톨릭 신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다양한 이들이 함께 걸을 수 있는 화합과 희망, 용기와 열정의 길을 마련할 것입니다. 젊은이와 젊은이, 젊은이와 교회 공동체, 젊은이와 교황님, 그리고 젊은이와 하느님이 기쁨 안에서 만나는 장이 바로 WYD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보편성을 추구하는 가톨릭의 가치와 함께 걷는 길인 시노드 정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러나 WYD는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참가 대상에는 종교와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각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며 공통된 신앙의 열정을 나눌 수 있는 장입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서로를 환대하는 WYD를 통해 기성세대는 신앙의 전통을 나누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교류하며 세대 간의 상호 소외를 극복하고 진정한 연대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WYD는 선교의 장으로서, 다양한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국에서 젊은이들의 열린 마음이 만난다면 더욱 자유로이 종교, 문화 간의 대화와 화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한국 가톨릭교회는 젊은이들과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포용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2027 서울 WYD는 희망의 순례로서, 젊은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그들 곁에 다른 젊은이들, 어른 신자들, 교회가, 그리고 하느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가톨릭교회는 젊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징표가 될 것입니다.

WYD 개최는 본당 공동체에도 소중한 체험과 의미를 줍니다. 본당 신자들은 전 세계에서 온 다양한 이들과의 만남을 통해 신앙의 폭을 넓히고,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신앙 공동체로서의 결속을 강화하는 기회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WYD 준비와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봉사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신앙의 열정을 새롭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2027 서울 WYD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성장하고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7 서울 WYD 지역 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바오로 주교

젊은이를 위한 기도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기도문]

- 젊은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 아버지,
당신을 닮게 지으신 이들이
외아들을 내어주신 당신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내려주시어
삶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젊은이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모으시어
당신의 자비를 체험하게 하소서.
- 저희는 그들의 고민과 아픔에 함께 하며
교회 안에서 환대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동반하게 하소서.
- ◎ 성자의 십자가와 부활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젊은이들이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통해
신앙의 열정을 되살려 교회와 세상을 새롭게 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멘.
- + 한국 교회의 주보이신 성모 마리아님,
◎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 + 한국의 모든 순교성인과 복자들이어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024년 1월 23일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인준

1. WYD란?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야 하는 까닭은
그들에게 미래를 바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힘은 하느님 사랑과 은총 안에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감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에너지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2027 서울 WYD(세계청년대회) 발대 미사 중



▲ 2027 서울 WYD 발대식, 2024년 7월 28일 명동 대성당

1) WYD란 무엇인가요?

WYD는 ‘World Youth Day’의 약자로 세계청년대회(세계 젊은이의 날)를 말하며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교황님과 함께 모이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WYD 안에서 젊은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되새기고, 자신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나누며 깊은 영적 쇄신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WYD는 단순히 행사가 아닌 순례의 여정이자, 젊은 교회로 가는 사목의 여정입니다.

2) 순례자 참가 신청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WYD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젊음을 간직한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자리입니다.

종교·국적·세대를 초월해 모든 이들이 함께하며, 기쁨의 축제를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희망의 불씨를 얻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행사 기간과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WYD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2027년 8월 3일~8일에 개최됩니다. 주요 일정은 크게 교구대회와 본대회로 나뉩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교구에서 열리는 교구대회 4박 5일, 서울에서 열리는 본대회 5박 6일로 총 12일간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교황청 WYD 주무 부서인 ‘평신도가정생명부’의 결정으로 확정됩니다.

교구대회 (DAYS IN THE DIOCESES)		세계청년대회 (WORLD YOUTH DAY)						
7월 29일 ~ 8월 2일		본대회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교구별 프로그램 체험 (서울대교구 제외)		서울 도착 및 접수	접수	교리교육		밤샘기도 장소로 이동	파견미사	교황님과 봉사자와의 만남
전 세계 순례자 서울로 이동			젊은이 축제 (Youth Festival) 및 성소센터					
		개막 미사	젊은이 축제	교황님 환영행사	심자가의 길	밤샘기도	본대회 프로그램 변동 불가	

▲ 전체 일정표 예시

4) WYD 대회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WYD에는 전 세계에서 평균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참여합니다. 2027 서울 WYD의 경우, 파견미사 참석 기준으로 10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참여 인원 ¹⁾	연도	개최국	개최도시	참여 인원 ¹⁾
1985	이탈리아	로마	30만명	2002	캐나다	토론토	80만명
1987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00만명	2005	독일	겔른	120만명
1989	스페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40만명	2008	호주	시드니	40만명
1991	폴란드	체스토호바	160만명	2011	스페인	마드리드	200만명
1993	미국	덴버	50만명	2013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370만명
1995	필리핀	마닐라	400만명	2016	폴란드	크라쿠프	350만명
1997	프랑스	파리	120만명	2019	파나마	파나마시티	70만명
2000	이탈리아	로마	200만명	2023	포르투갈	리스본	150만명
				2027	대한민국	서울	100만명(예상)

1) 대회 마지막날 폐막미사 참여 인원 기준으로 집계

▲ 역대 WYD 개최국 참여 인원

5)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나요?

WYD는 순례의 여정이기에, ‘참가자’가 아닌 ‘순례자’로 부릅니다. 이 여정 동안 우리는 젊은이들을 환대하며 본당의 교리실과 강당 그리고 가정에서 홈스테이로 순례자들을 초대합니다. 특별히 홈스테이는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가정에 머물며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 WYD 경험에 비추어볼 때, 모든 순례자를 홈스테이로 수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각 본당과 본당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학교, 체육관, 강당 등 다양한 숙박 장소를 사전에 확보하여 순례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6) 2027년 서울 WYD 개최 의미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리스본 WYD 파견미사 중, “2027년 WYD는 유럽의 서쪽 끝인 리스본에서 아시아의 동쪽 끝으로 이동하여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라고 발표하시며 전 세계 젊은이들을 서울로 초대하셨습니다. 2027 서울 WYD는 젊은이들의 필요와 관심에 귀 기울이며,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사랑과 보살핌을 전하는 사목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은 급변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WYD는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하고 아픔을 치유하여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WYD의 역사

1) WYD의 시작



▲ 1992년 폴란드 체스토코바에 모인 WYD 순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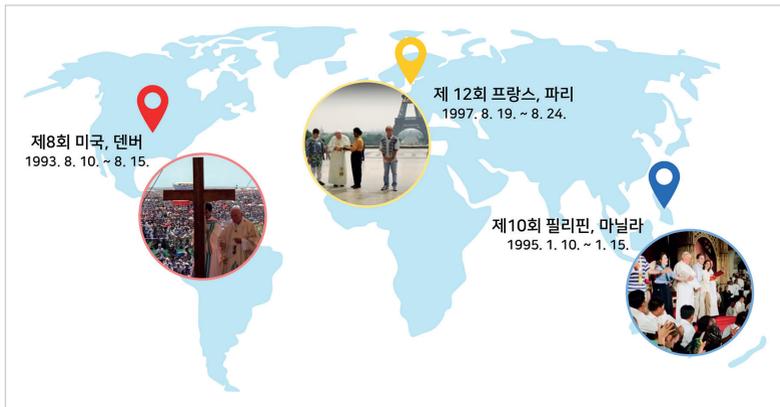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서는 1984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 전 세계 청년들을 로마로 초대해 신앙 체험의 장을 마련하셨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85년 사도적 서한 「전세계의 젊은이들에게」를 통해 WYD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그리하여 1986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인 3월 23일 로마에서 제 1차 WYD가 개최되었고, 로마를 비롯한 각 지역 개별 교구에서 함께 기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WYD의 시작입니다.

오늘날에는 매년 각자의 교구에서 세계 젊은이의 날을 거행하고, 3~4년에 한 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WYD를 거행합니다.

2020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2021년부터 세계 젊은이의 날을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서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옮겨 지내기로 발표하셨습니다.

2) 역사 속 의의



▲ 역사 속 WYD 개최지 지도

WYD 대회 개최 장소들은 각 개최지의 역사적 흐름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장소적 의미와 사목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미국 교회의 경우,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행복한 삶은 물질적 소유가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충실성에 있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청년 사목의 발전을 견인하는 전문가 그룹을 발굴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교회는 ‘대회 준비-실행-후속’의 전체 여정을 통해 사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장기적인 시선을 가지고 WYD를 준비한 결과, 필리핀 청소년·청년 사목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교회는 WYD 여정 속에서 홈스테이와 같은 현대의 방식을 통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세대 간 상호협력을 배워나갔습니다. 이를 통해 유럽 교회는 쇠신의 중요한 희망을 발견하고, 전통과 유산을 가진 교회가 젊은이들을 배척하지 않으며 젊은이들에게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3. 2027 서울 WYD 준비 및 본대회

1) 주요 준비 일정



▲ 주요 준비 일정표

2)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의 순례



◀ WYD 십자가와 성모 성화, 명동 대성당

‘WYD 십자가’는 1983년 ‘구원의 특별 성년’을 기념하며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맡기신 나무 십자가로, WYD의 상징입니다. 이 십자가는 고통받는 이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기도의 순례를 이어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라는 연대의 표징입니다.

‘WYD 성모 성화’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2000년 로마 WYD에서 젊은이들에게 선물하신 희망의 상징입니다. 이 성화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우며, 성모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하느님과의 깊은 동행을 이어가도록 초대합니다.



▲ WYD 상징물 전달식, 로마 성 베드로 대성당



▲ 수원교구 순례



▲ 방글라데시 디나즈푸르 교구 순례

두 상징물은 2024년 11월 서울대교구에 전달되어 우리나라의 지역교구를 순례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아시아 대륙을 순례합니다. 이는 1995년 필리핀 대회 이후 32년 만에 아시아에서 개최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아시아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습니다.

국내 순례는 2026년부터 시작되며, WYD를 준비하는 각 지역 교구를 한 달씩 순례하며 모든 교구가 교구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3) 교구대회(Days in the Dioceses, DID)

교구대회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오전	도착	아침 미사 및 그룹 모임			주일 미사 (환송)
오후		순례 및 교구별 프로그램			
저녁	환영 행사	지역 프로그램			서울로 이동

▲ 교구대회 일정표 예시

교구대회는 WYD 본대회 직전에 진행되며, 개최지인 서울대교구를 제외한 각 교구에서 열립니다.



이 기간에 각 교구는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순례자들은 해당 국가의 고유한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구대회는 본대회에 앞서 영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4) 본대회(주요 일정)

본대회	8월 3일	8월 4일	8월 5일	8월 6일	8월 7일	8월 8일
오전	도착	교리교육			밤샘기도 장소로 이동	파견미사
오후	젊은이 축제 (Youth Festival) 및 성소센터			교황님과 봉사자와의 만남		
저녁	개막 미사	젊은이 축제	교황님 환영행사	십자가의 길	밤샘기도	본대회 프로그램 변동 불가

▲ 본대회 일정표 예시

① 개막미사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공식 전례로 본대회를 개최하는 교구장 주교님이 주례합니다. 또한, 전 세계 젊은이들과 함께 순례한 WYD의 상징인 십자가와 성모 성화가 제대 옆에 안치되며 본대회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② 교황님 환영행사

교황님과 젊은이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으로, 환대와 축하의 분위기 속에서 기도로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교황님의 격려와 강론, 복음에 대한 경청과 묵상을 경험하며, 젊은이들이 준비한 환영 행사가 어우러져 특별한 의미를 더합니다.



③ 십자가의 길

교황님의 성호경과 함께 시작되며, 각 처에 대한 소개와 묵상기도가 진행됩니다. 연극 등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예수님의 수난 여정에 관한 각 처의 내용을 표현하며, 신앙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체험합니다.



리스본 WYD 십자가의 길

④ 밤샘기도

모든 순례자들은 파견미사 전날 미사 장소로 모여 밤샘기도를 진행합니다.

교황님과 함께 밤샘기도를 하면서 성체 앞에서의 침묵과 묵상, 공동 기도를 통해 깊은 영적 친교를 이루는 순간이 됩니다.



리스본 WYD 밤샘기도

⑤ 피견미사

밤샘기도를 지나 주일이 되면 파견미사를 봉헌합니다. 파견미사는 본대회 기간 동안 지내온 여정을 마무리하며, 젊은이들은 교황님과 함께 지냈던 여정들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견됩니다.



리스본 WYD 파견미사

5) 본대회(다양한 사목 프로그램)

① 교리교육

본대회 기간 3일간 매일 오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언어권별로 주교님의 교리교육이 진행되며, 주교님은 젊은이들의 고민과 질문에 경청하며 교회를 대표해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크라쿠프 WYD 교리교육

② 젊은이 축제

교리교육과 주요 프로그램을 제외한 오후와 저녁 시간에는 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술적, 종교적, 영적인 성격의 다양한 활동들이 진행됩니다. 젊은이들은 콘서트, 전시회, 워크숍, 스포츠 경기,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리스본 WYD 젊은이 축제

③ 성소센터

성소 박람회라고도 불리며 젊은 순례자들이 부르심을 더욱 깊이 식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다양한 단체, 공동



크라쿠프 WYD 성소센터

제, 수도회 등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열립니다. 순례자들이 자유롭게 방문하여 성소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고 자신의 신앙 여정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④ 고해성사

고해성사 역시 대회 기간 중 중요한 부분으로, 순례자들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사제들은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고해성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하도록 이끕니다.



⑤ 교황님과 봉사자외의 만남

파견미사가 끝난 후 교황님과 봉사자들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이 자리에서 교황님은 대회를 위해 애쓴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시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 축복해 주십니다.



4. 2027 서울 WYD 로고



성령 위에 하나 된 서울과 전 세계의 청년

로고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에 배치된 십자가는 두 획으로 이루어져 ‘하느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으며 역동적인 청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붉은색은 피의 순교 정신을, 파란색은 청년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노란색 원은 성령을 의미하며 그리스도 승리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검은색은 청년들 앞에 놓인 미지의 시간, 그러나 청년들에 의해 밝혀질 어둠을 의미합니다.

한국 전통 서예 기법으로 ‘서울’을 표기했으며, 그 안에서 W.Y.D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WYD’가 함께 보이도록 교차되는 모습을 통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일치와 2027 서울 WYD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축제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 2027 서울 WYD 주제성구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요한 16:33

2027 서울 WYD 주제의 핵심은 '희망과 증거'입니다.
주제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참된 사랑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용기를 내어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의 희망이 되라고 전 세계 젊은이들을 초대합니다.



2023년 제38차 (교구 단계)

“희망 속에서 기뻐하십시오.”(로마 12,12)



2024년 제39차 (교구 단계)

“주님께 희망을 둔 이는 지칠 줄 모르고 걸어갑니다.”
(이사 40,31)



2025년 제40차 (교구 단계)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를 증언할 것이다.”(요한 15,27)



2026년 제41차 - 2027 대한민국 서울 (국제 단계)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



6. 2027 서울 WYD 영성

2027 서울 WYD는 주제성구를 바탕으로, 서울 WYD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진리’, ‘사랑’, ‘평화’를 선정하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체에 특별히 요청되는 주요한 가치들입니다. 이를 한국의 고유한 영성을 기반으로 WYD를 통해 영적 가치를 전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3가지 대주제에는 소주제와 표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2027 서울 WYD 영성은 앞으로의 준비 단계와 본대회에서 구현되는 활동들의 기반이 되는 가치입니다.



WYD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영적 가치는 무엇인지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진리	사랑	평화
고유한 신앙의 역사	비그리스도교 문화	유일한 분단 국가
신앙 · 순교 · 선교	생명 · 가정 · 생태	화해 · 정의 · 공동선
온갖 형태의 거짓을 이겨내는 진리	모든 피조물의 생명 존중을 지키는 사랑의 문화	온갖 형태의 폭력에 굴하지 않는 평화
“진리를 찾는 용기”	“사랑을 실천하는 용기”	“평화를 이루는 용기”



7. 2027 서울 WYD 사목적 의미

<p>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순례의 여정으로서의 WYD</p>  <p>신앙을 깊이 체험하고 대회 이후에도 교회의 일원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중요한 사목적 이정표</p>	<p>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회</p>  <p>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여 한국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는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p>	<p>사람과 봉사에 대한 소중한 가치 재인식</p>  <p>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 봉사자들에게 대한 세심한 보살핌 필요</p>	<p>본당, 지구, 교구, 보편 교회와의 유기적 연계와 협력</p>  <p>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충분한 소통과 공유 필요</p>	<p>‘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WYD</p>  <p>소비주의 문화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사용 실천 필요</p>
---	---	--	--	--

1) 일회적인 행사가 아닌 순례의 여정으로서의 WYD



2027년 서울 WYD는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국 젊은이 사목의 여정을 이끄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준비 과정

부터 신앙을 체험하고 성장하는 순례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여정은 대회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WYD 이후에도 젊은이들이 교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의 동반과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2) 하느님 백성 모두가 함께 만드는 교회



▲ 제16차 세계주교시노드 로고

2027 서울 WYD는
젊은이들의 만남과 축제의 자리이지만
그들만의 시간은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열려있는 자리입니다.

이 여정에 함께하는 과정은 냉담자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웃음과 생기가 넘치는 교회로 거듭나는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하느님 백성(평신도, 수도자, 성직자) 모두가 주체가 되어 함께 준비하고 만들어 가는 이 여정은, 갈등과 분열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한국 사회 안에서 빛과 소금과 같은 희망의 표지가 될 것입니다.

3) 사람과 봉사에 대한 소중한 가치 재인식



▲ WYD 준비과정 봉사자 1기 수료 감사미사

2027 서울 WYD는

수많은 봉사자에 의해 준비되고 진행되는
참된 사랑이 실현되는 자리입니다.

젊은이 봉사자뿐만이 아니라 각 본당과 가정, 그리고 지역 공동체와 국가의 모든 이들이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서로 기쁨을 나누고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함께하는 이들과 그들이 보여준 봉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존중받아야 하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봉사를 통해 사회와 교회에 기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봉사자들이 그 시간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4) 본당, 지구, 교구, 보편 교회와의 유기적 연대의 체험



▲ 주교님과 함께하는 지구공동체 미사

2027 서울 WYD를 위해서는 본당, 지구, 교구 그리고
보편 교회와의 연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WYD는 교구대회(DID)를 비롯해 본대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구가 서로를 믿고 사랑으로 협력하는 가운데 일치된 한국 교회의 연대로 이루어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아울러 교구와 지구, 지구와 본당 간의 긴밀한 연결과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WYD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각 본당의 여러 상황에 깊은 관심을 두고,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며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구와 지구와 본당이 하나가 되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각 본당에서부터 한국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고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사랑의 깊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5) '공동의 집'인 지구를 지키는 WYD



▲ 우리 공동의 집 지구

현대 사회에서 생태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교황님께서는 「찬미받으소서」를 통해 오늘날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공동의 집인 지구가 매우 고통받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따라서 WYD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 안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사용과 재사용, 재활용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젊은이들에게 지구에 대한 책임을 일깨우고,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WYD의 실천이 교회의 가르침을 대사회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8. 2027 서울 WYD 함께 만들어 가기

1) 기도하기

2027 서울 WYD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준비하는 과정이 WYD 순례의 여정에 동반하는 시간이고, 하느님과 함께 만들어 가는 2027 서울 WYD가 됩니다.

① 묵주기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



2027 서울 WYD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영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 묵주기도를 함께 바칩니다. 성모님과 함께 정성껏 바치는 묵주기도는 2027년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봉헌한 묵주알은 2027년에 실제 묵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WYD 묵주기도 등록

QR을 통해 다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ㄱ. **본당참여**: 본당에 비치된 목주 기도함을 통해 봉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ㄴ. **단체참여**: 단체 소속으로 WYD 홈페이지를 통해 봉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ㄷ. **개인참여**: 개인이 누구나 쉽게 봉헌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② 2027 시애틀 WYD를 위한 '기도의 날' 시행

ㄱ. 매월 성시간

: 교구장님께서 청년들과 함께 마련하신 매월 기도 지향을 바탕으로 복음과 강론 준비

ㄴ. 매월 넷째 주일 미사 지향

: 교중 미사, 청년, 청소년 미사 등을 통해 2027 서울 WYD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미사로 봉헌

ㄷ. 매월 넷째 주일 미사의 마지막 보편지향기도

: 교구장님의 기도 지향을 바탕으로 청년들이 준비한 기도문 봉헌

ㄹ. 매 미사 '젊은이를 위한 기도' 봉헌

: 전례 주년을 고려하여 매 미사 전 또는 후에 교구장님께서 인준하신 WYD 준비 기도인 '젊은이를 위한 기도' 봉헌

③ 2027 서울 WYD를 위한 '20시 27분' 기도



어느 곳에 있던 모두가 함께 매일 2027년을 상징하는 '20시 27분'에 '젊은이를 위한 기도'와 '주모경'을 바칩니다.

'젊은이를 위한 기도'는 '매일 미사'와 '가톨릭 굿뉴스(App)'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내 본당과 가정 (홈스테이) 열어주기



▲ 리스본 WYD 본당 내 교리실에 마련된 숙소

전 세계 젊은이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교황님을 만나고 같은 신앙을 지닌 젊은이들과 지역교회의 신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집을 떠나와 고생하며 신앙 체험을 하는 현장이 WYD입니다.



▲ 리스본 WYD 홈스테이

해외 순례자들과 젊은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 본당과 자신의 집을 열어 관대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당과 가정을 통해 맞이하는 환대입니다.

모든 숙소는 5박 6일 동안 침낭을 피고 쉴 수 있는 공간(2m*1.5m)
과 샤워나 세면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면 가능합니다.

순례자들은 WYD 프로그램 일정 참가로 대부분의 시간을 외부
에서 보내기 때문에 취침 시간(의무 통금 시간 00:00~06:00)을 제
외하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그리스도인의 만남
- 순례자들에 대한 열린 마음
- 삶의 자리를 공유하고 초대하는 봉사의 마음
- 순례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태도

용기를 내고 마음을 열어 내 삶의 자리이자 신앙의 터전인 본당과 가정으로 많은 이들을 초대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은총을 깊이 체험하는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WYD 지역조직위원회에서 최대한 지원해 드릴 것입니다. 향후 본당과 홈스테이 등에 관한 숙소 운영 매뉴얼과 더불어, 식사 제공, 재정, 봉사자, WYD 분과 운영 등에 관한 지구와 본당에서 활용할 여러 매뉴얼들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업데이트해 나가겠습니다.

3) WYD를 위한 열린 마음 (환대)

2027 서울 WYD를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며, 여러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황님께서 한국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불러 모아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WYD라는 크나큰 순례 여정 안에서 순례자들에 대한 넓고 깊은 열린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대를 통한 WYD 정신 실천하기

- 하느님 사랑 체험
- 사랑과 봉사에 대한 가치 실현
- 기도의 중요성 인식
- 젊은이들의 주도적 참여

서로 간의 장벽 허물기

- 국가와 민족 간의 장벽 허물기
- 세대 간의 장벽 허물기
- 장애의 장벽 넘어서기
- 다양한 가치 존중하기

함께 하나되는 공동체 경험하기

- 본당, 지구, 교구, 보편교회와의 연대
- 가정공동체의 소중함 경험
- 우리 모두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일치

9. 나가는 말

“2025년 청년 회년’ 행사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WYD)를 통해 나의 “꿈”은 이 행사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한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저는 낙담한 젊은이들, 지평 위로 눈을 들지 않으며 원대한 꿈을 접고 환멸에 사로잡혀 삶의 문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을 생각합니다. 아시아는 생명력이 넘치는 젊은 대륙이지만, 특히 많은 젊은이들이 대도시에서 관계 단절과 의욕상실로 인해 희망을 잃고 자기 자신에게만 빠져들어 고통받고 있습니다.....로마와 서울에서 열리는 대회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 그리고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신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 2025년 5월 국제 젊은이 사목자 회의 중 프란치스코 교황님 말씀 중

2027 서울 WYD는 교황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며 그 희망이 전 세계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기쁨과 사랑으로 전해질 수 있는 만남과 선교, 희망의 순례 여정이 지속되는 사목의 장입니다.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다가올 어려움이 있겠지만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요한 16,33)라는 2027년 주제 성구를 다시금 되새기며, 우리 모두 함께 온 마음을 모은다면, 우리는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희망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복음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027 서울 WYD를 준비하고 진행하게 될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깊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본당 공동체와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교회의 미래가 되어주며 더 많은 이들이 함께 신앙을 나누고 희망하는 공동체가 되길 기도해 봅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모두 함께 이 은총의 여정을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